

〈다윗의 열등의식〉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7/1(주일) 설교 내용

사무엘상 18:6-9

1. 내 속에 자리잡고 있는 열등의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며, 열등감을 가졌던 기억이 있다면, 혹시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열등감이 있다면, 진솔하게 나누어 봅시다.

다윗은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열등의식’으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그 열등의식은, 성공을 쟁취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자라게 되었고,
결국 그 욕심은, 사울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었던 것은,
결국 그 안에 자리잡고 있었던 열등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이런 열등의식이 과거에 있었거나, 혹은 여전히 내 속에 자리잡고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목자님들, ‘열등의식’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임을 인식시켜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윗은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사람의 손을 붙잡습니다. 내 인생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했던 방법(대상)이 있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나눔이 끝나고, ‘우리가 사람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놓으신다’는 말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결단과 다짐의 기도를 합시다.

1번 질문에서 나누었듯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에게는 누구나
‘열등의식’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떨쳐 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내 인생을 뒤돌아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했던 경험이 있었는지..
또 그것을 통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님들,
나눔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사람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놓으십니다’
를 목원들과 함께 큰소리로 복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나님 보다 인간을 더 의지했던 것이 내 모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인간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겠노라는
결단과 다짐의 기도를 다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한 두 문장씩 짧게 릴레이 기도를 하고,
마지막은 목자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